

소비조합 이사장 권순정입니다.

먼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유감입니다. 지난 24년 동안 우리 학교 임직원들에게 매점 영업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던 소비조합이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사태로 우리의 주요한 일상이 비대면으로 급속도로 전환되어 왔습니다. 지난 1년은 온 국민이 처음 겪는 고통과 불안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대학교를 비롯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초.중.고등교육 학사일정이 비대면 중심으로 전환되었고, 지난 1년간 학기중인지 방학중인지 구별이 안될 정도로 캠퍼스 내 유동인구는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조합 매점 매출이 전년도 대비 80% 이상 떨어지는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은 지금 현재까지도 개선될 여지나 지표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측과 소비조합은 임금교섭을 통하여 이와 같은 비상사태를 극복하고자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노력을 다하여 왔지만, 위와 같은 위기상황의 장기화로 인해 재정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결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에서 소비조합 이사회는 2021년 3월 9일에 해산결의를 하였고, 소비조합은 현재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비조합 매점은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청산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당분간 잠정 운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이와 같은 어려운 결정을 발표하게 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오랫동안 정들었던 직장을 잃게 되는 소비조합 직원분들에게 송구한 마음이며, 매점 중단으로 당장 불편을 느끼실 본교 구성원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올해는 코로나19 사태가 호전되고 예전의 일상으로 회복되어 대학과 사회 그리고 경제가 모두 정상화되기를 기원합니다.

2021. 3. 12.

아주대학교 소비조합 이사장